

당신을 배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베다니 공부방 안내

“함께 모여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따뜻한 시간”

- 1월 13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1
- 2월 10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2
- 3월 10일 (화) 20시 | 조동호 박사 • 스프링필드장로교회의 유언 3
- 4월 14일 (화) 20시 | 백종구 박사 •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의 해외선교와 독립선교의 발전

[온라인(Zoom) 참여 방법] 회의 ID: 867 2167 3476 암 호:

문의: 조기연 총무 (kiyonjo@hanmail.net)

환원운동연구회



암호: 402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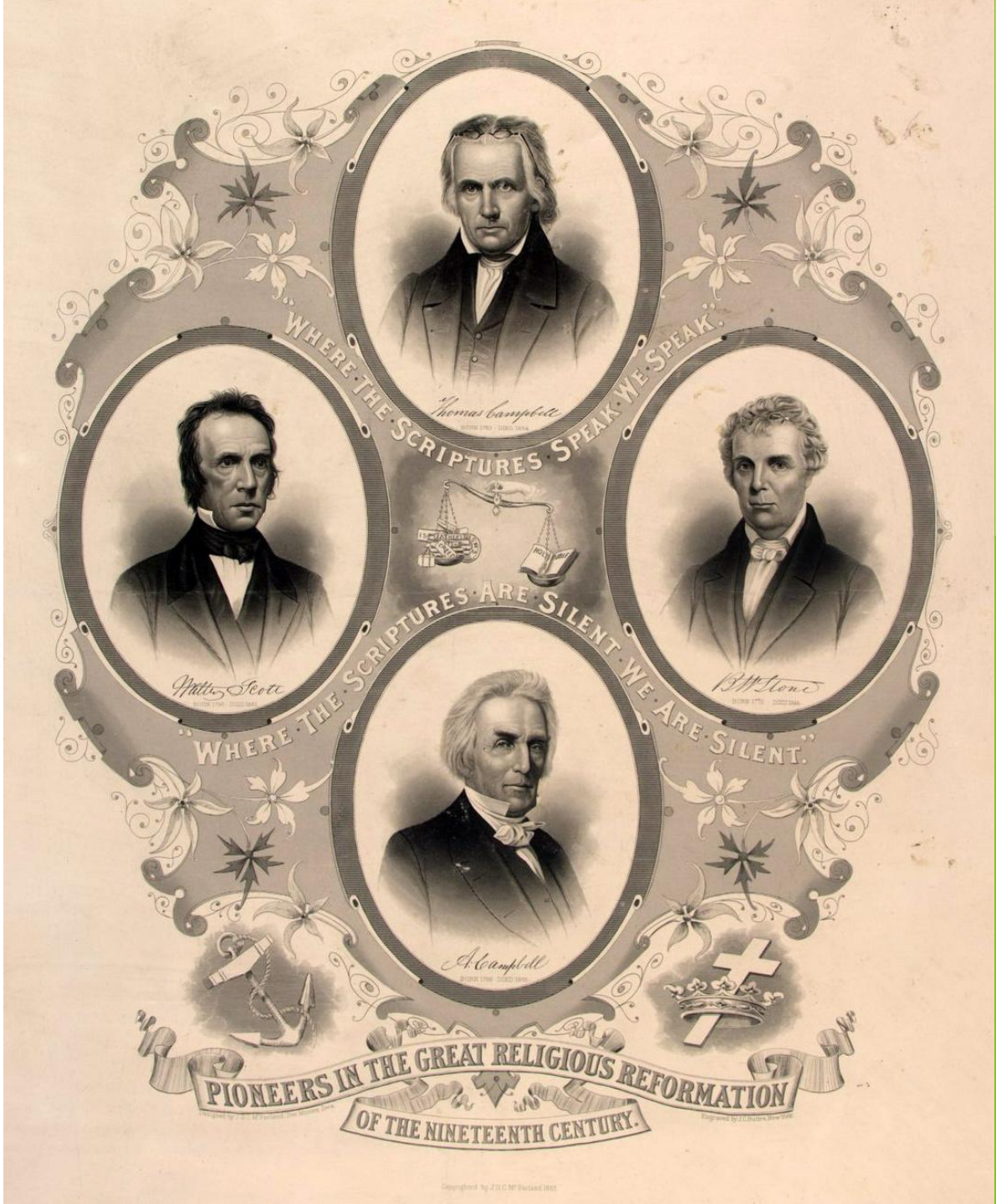
케인 리지 부흥회와 스프링필드장로회 유언문서



Barton W. Stone (1772-1844) | Alexander Campbell (1788-1866) | Thomas Campbell (1763-1854) | Walter Scott (1796-1861)

 PlainBibleTeaching.com

스톤-캠벨운동의 초창기 개혁가들



- 캠벨의 부친 토마스 와 월터 스콧과 함께 일반적으로 **캠벨의 개혁(환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지(연합)로 여겨지는 인물은 발톤(발튼, 바튼) W. 스톤(Barton W. Stone)이다. 19세기 그의 노력으로 성장한 세계적인 전통은 학계에서 **‘스톤-캠벨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스톤의 관계는 기껏해야 항상 불안했고 최악의 경우 그 운동의 중심과 정신에 대한 끈질긴 싸움을 상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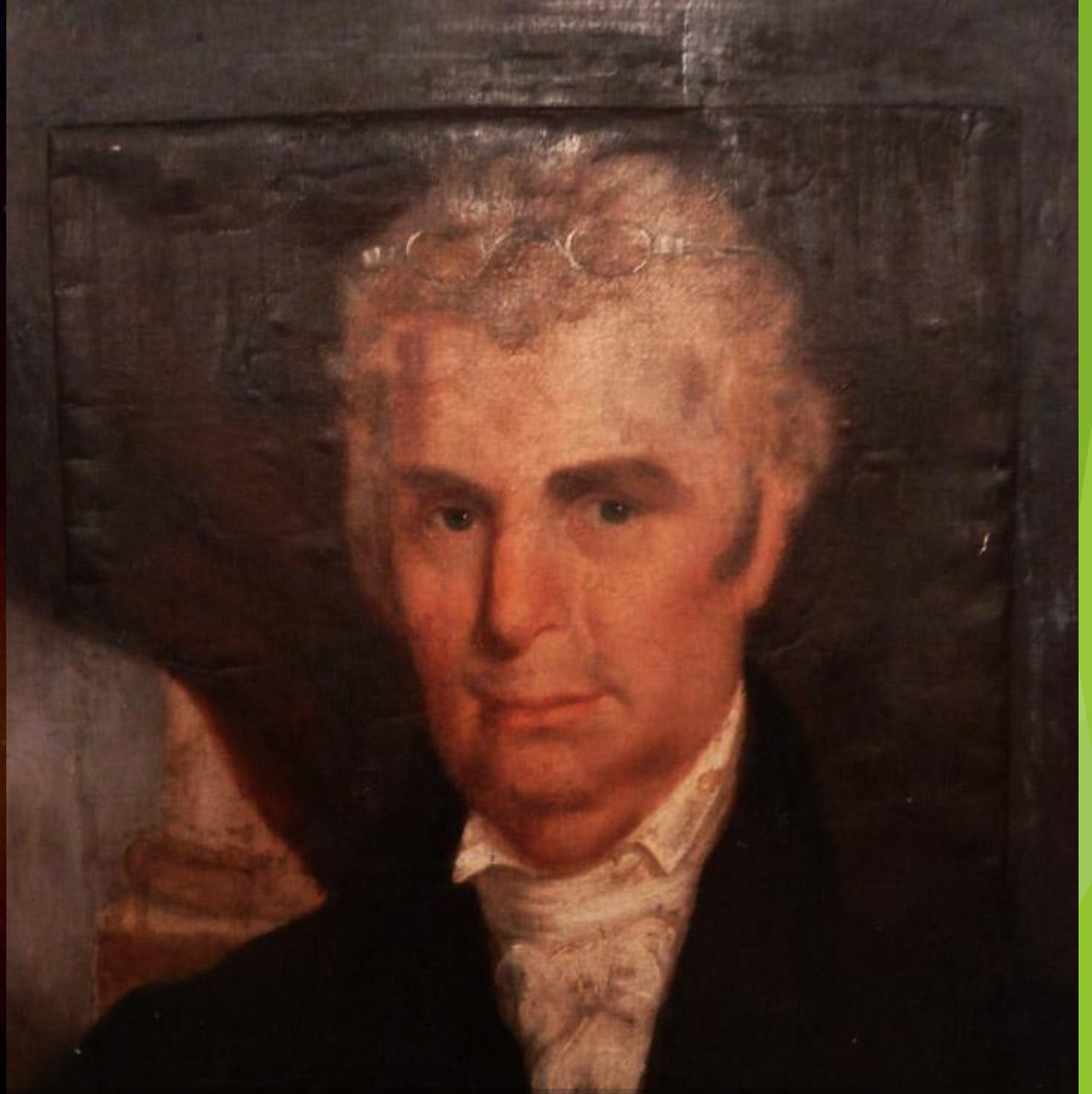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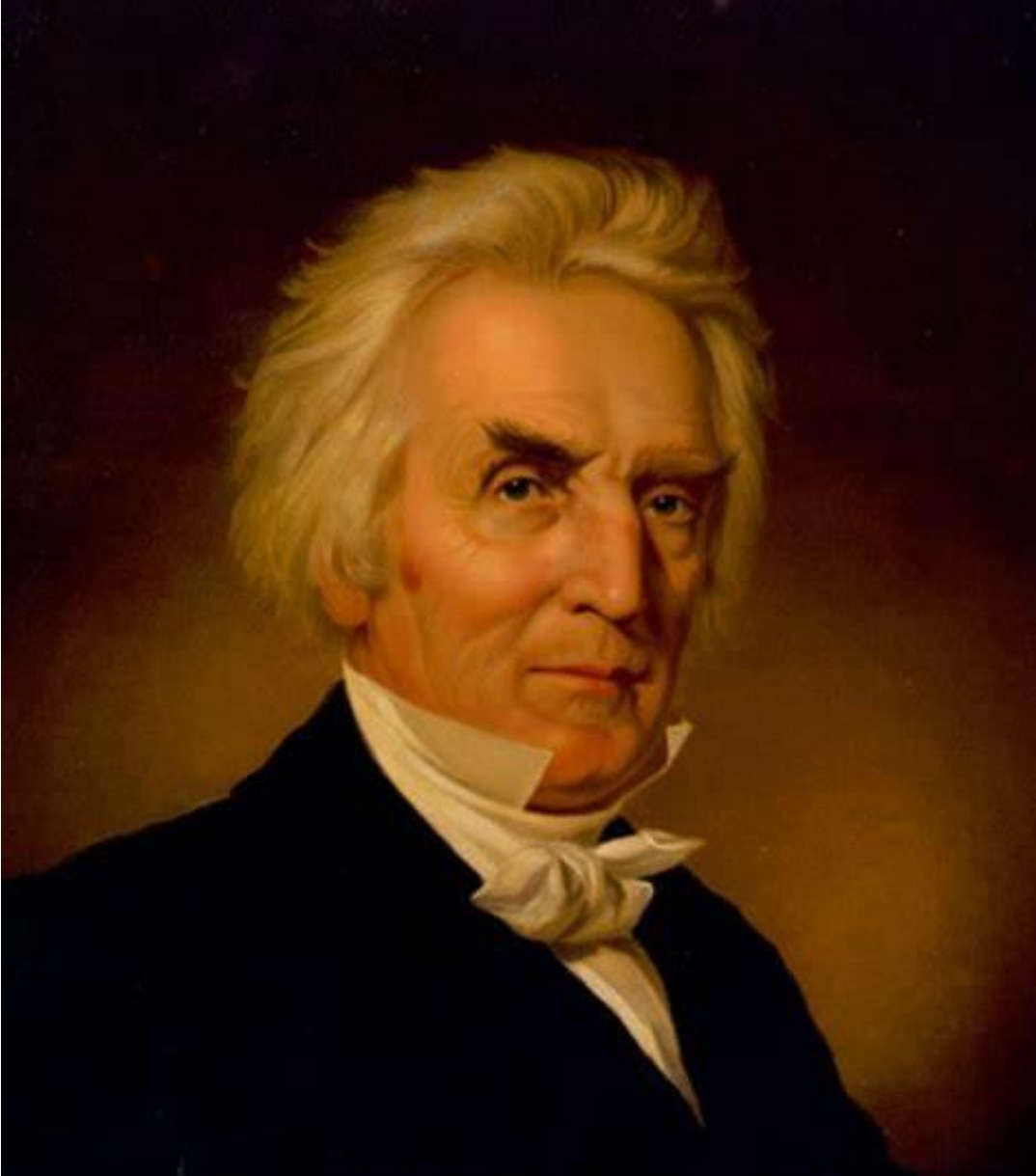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 Campbell*

Farewell. B. W. Stone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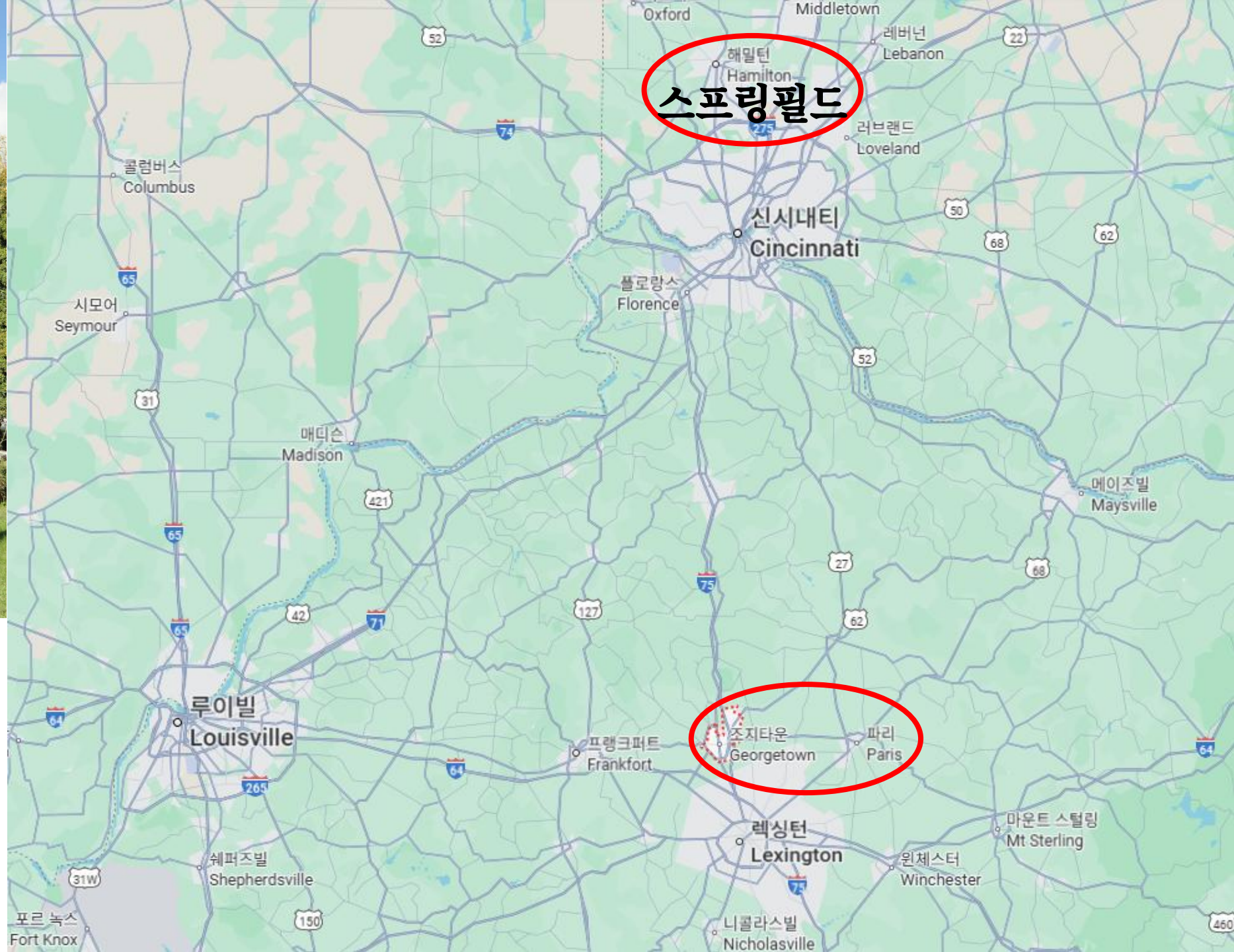
Barton W. Stone(1772-1844)의 자필 사인
“Farewell”



**캠벨(Campbell)과 스톤(Stone)의 회동은 1824년
켄터키 주 조지타운(Georgetown)에서 이뤄졌다.**



**렉싱턴 묘지공원
(J. W. 맥가비가 잠든 곳)
스프링필드
(스프링데일),
조지타운,
파리, 케인 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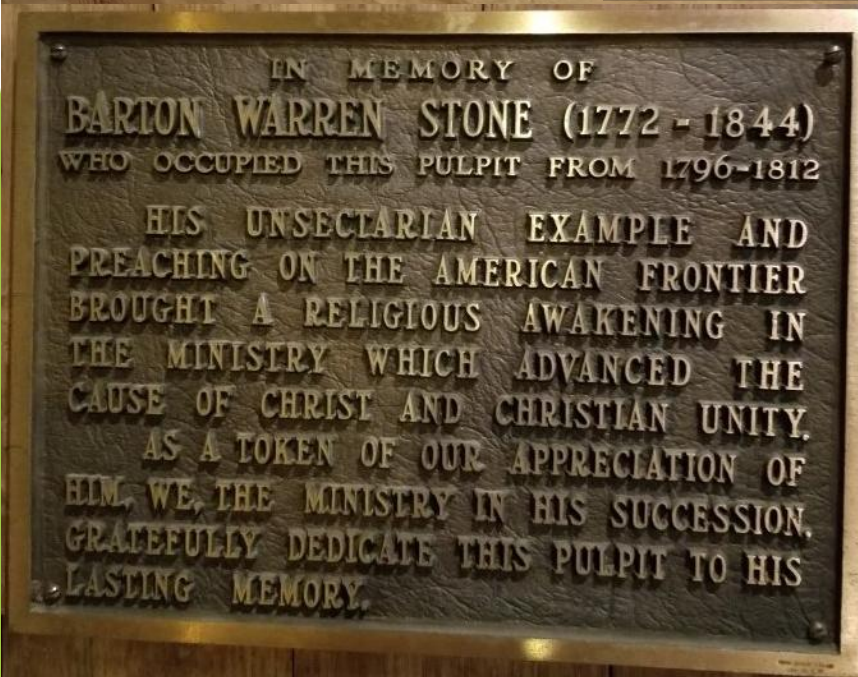
발톤 W. 스톤이 시무했던(1796-1812년) 케인 리지 집회소(Cane Ridge Meeting House, 1791년에 건축되어 1922년까지 집회소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집회소를 씌운 1957년에 완공된 건물 속에 보존되고 있다.) 이곳은 1801년 '케인 리지 대부흥회' 현장이며, 1804년 6월 28일 <스프링필드 장로회 유언서>가 발표되고 '그리스도인교회운동'(Christian Church Movement)이 탄생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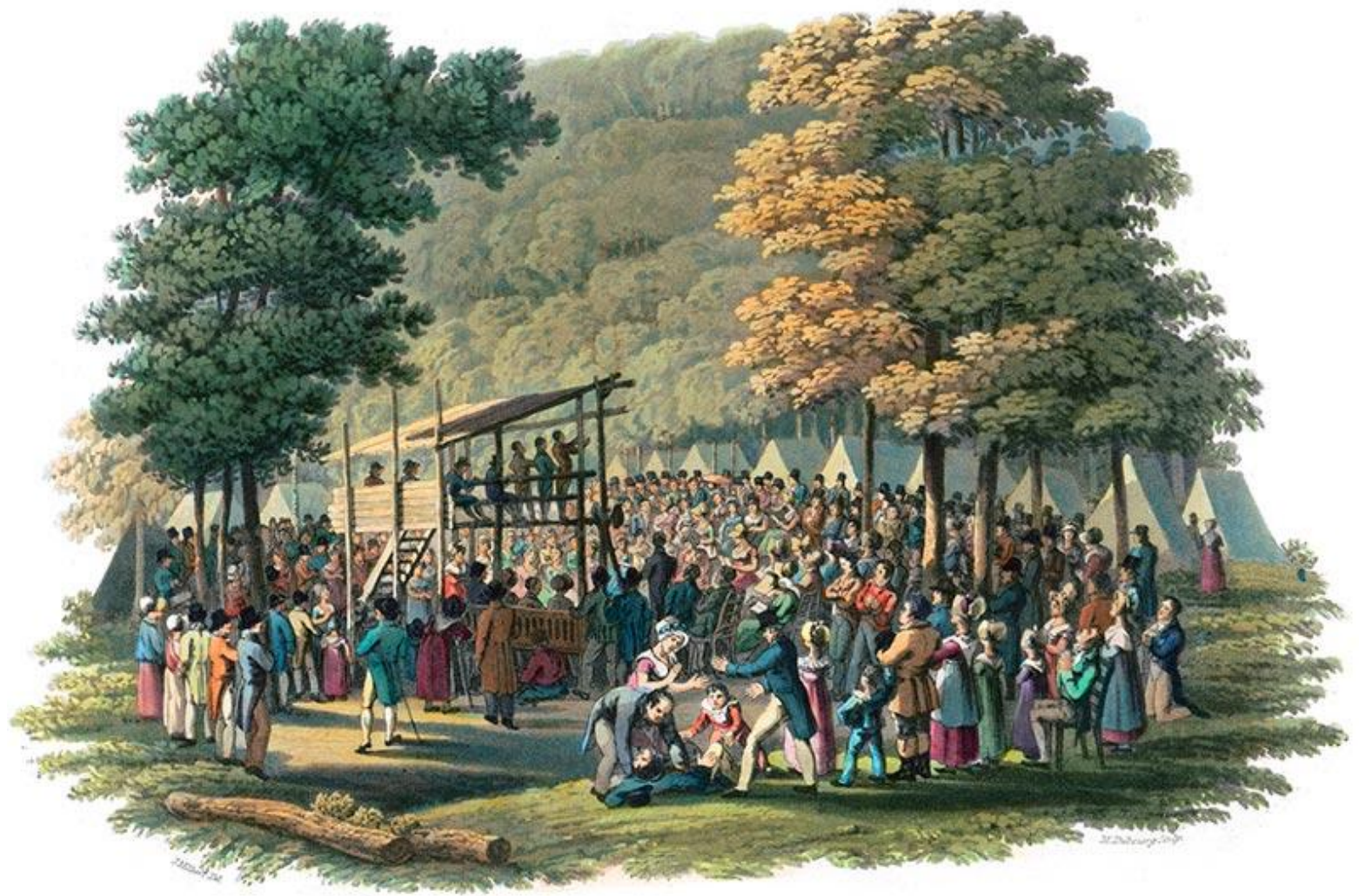






Cane Ridge Meeting House 내부
지금도 종종 집회소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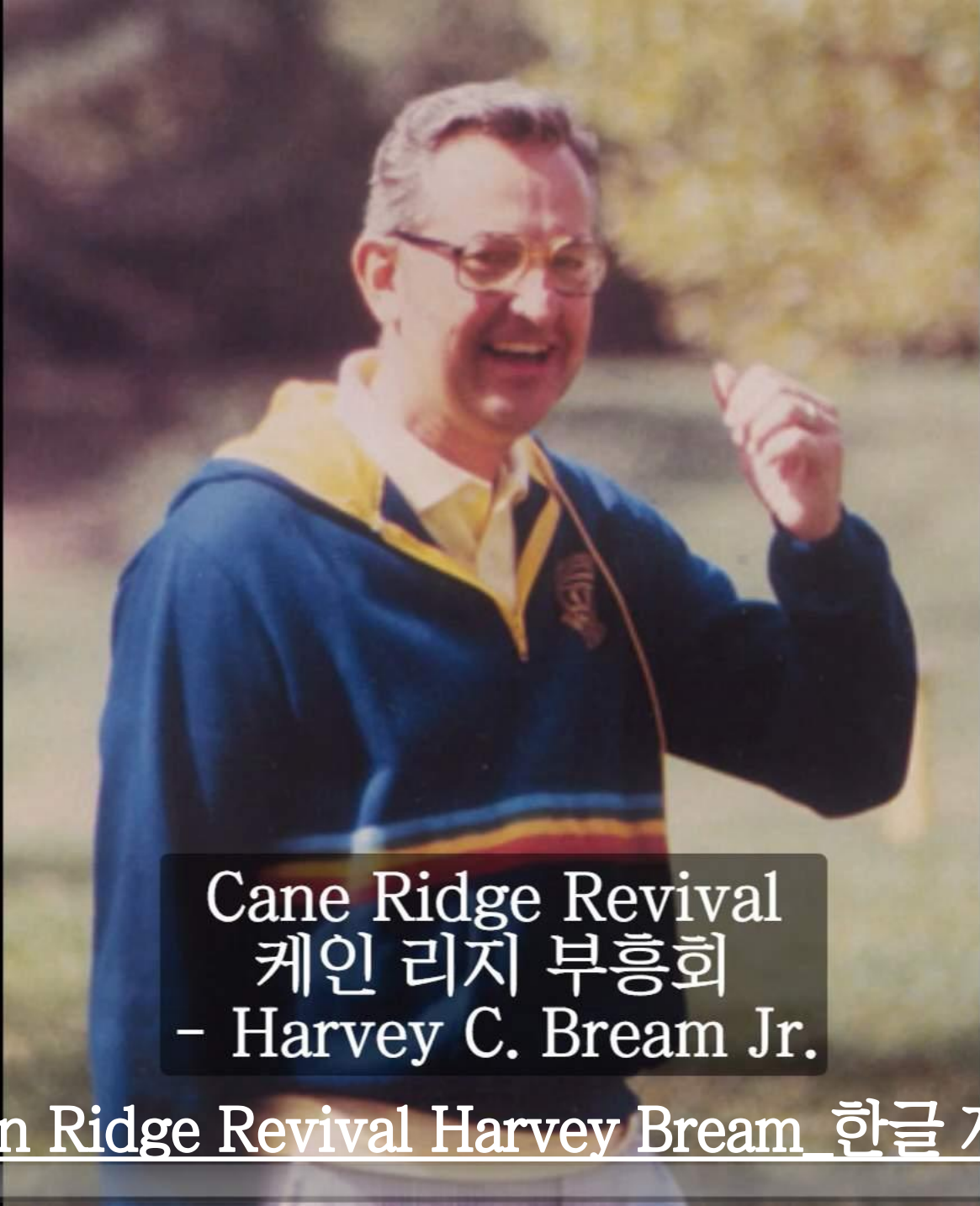


1801년 8월 6일(금)부터 일주일 동안 주일 주의 만찬식을 위한 초교파 대부흥회 (제2차 대각성 운동)가 케인 리지(Cane Ridge)집회소 앞 개활지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발톤 스톤 목사는 만 28세였다. 그림 앞부분 중앙과 오른쪽에 입신자와 그 밖의 다양한 성령 체험자들이 묘사되었고, 왼쪽 앞에는 구경꾼들이 묘사되었다.

- 18-19세기에 부흥운동(1-2차 대각성운동)이 미대륙의 변방 개척지들을 휩쓸고 있었다. 이러한 부흥회들 중의 하나가 젊은 발톤 스톤 목사가 시무한 켄터키 주 케인 리지 집회소 앞 개활지에서 개최되었다. 인근의 여러 주에서 온 참석자들이 2-3만명으로 추정되었고, 그들이 피운 불로 인해서 **“밤에는 조릿대(cane)들이 산불처럼 느껴졌고, 매우 많은 모닥불들이 불타고 있었다.”**
-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독립교회 설교자들이 나무 그루터기나 짐마차 상판에 올라섰고, 수천 명의 군중이 이 설교자들의 주위에 모였다.
-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교파와 특징과 신조들을 떠나 성경적 교리를 설교 했는데, 설교의 핵심은 일명 **'유황불 지옥'**으로 알려진 회개 촉구였다.
- 청중 중에는 큰 해방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웃거나 춤추거나 울거나 몸을 비틀거나 부르짖거나 입신하거나 했다. 이를 지켜본 한 야유자는 이것을 일컬어 **laughing exercise, dancing exercise, crying exercise, jerking exercise, barking exercise 및 falling exercise**라고 불렀다.

- 젊은 발톤 스톤(Barton Stone) 목사는 이 모든 것을 의아해 했고,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후의 환원운동 부흥회의 전형이 아니었다(*스톤-캠벨운동의 성령론은 개혁주의 성령론과 거의 같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이들이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 그 부흥회는 단 7일 만에 끝났다. 시골 케인 리지에 식량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짐을 챙겨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어마어마한 인상(감상)을 갖고 떠났다.
-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케인 리지 부흥'(Cane Ridge Revival)의 불은 소멸되고 말았고, 장로회에 소속된 스톤과 동역자들은 오히려 이 부흥회 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
- 그 징계가 스톤으로 하여금 1804년에 개혁가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 케인 리지 집회는 켄터키 장로회(Kentucky Presbyterian) 지도부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들 대부분은 부흥에 반대하는 '옛 빛'(Old Lights)파였다. 그 후 2년 동안 스톤과 그의 부흥회 동료들은 점점 더 정통 장로교와 갈등을 빚었다.
- 1803년 9월 켄터키 노회(Synod of Kentucky) 모임 때 스톤과 다른 네 명의 목회자들은 탈퇴하고 그들 자신들을 위해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를 결성하였다.
- 그러나 1년 내에 그들은 현 스톤-캠벨 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의 첫 번째 창립 문서로 간주되는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Springfield Presbytery)를 발표하고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산하였다.
- *** '새 빛'(New Lights)이란 말은 영국령 북미 식민지에서 있었던 제1차 대각성 운동(1730-40년대) 때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에 의해서 부흥운동을 받아 드린 사람들에게 처음 사용되었다. 반면에 '옛 빛'은 부흥운동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교파를 일컫는 말이다. 빛=계시



Cane Ridge Revival
케인 리지 부흥회
- Harvey C. Bream Jr.

Cain Ridge Revival Harvey Bream 한글 자막



TRAIL FIRE

Cane Ridge Revival

케인 리지 부흥회
대니얼 노리스(Daniel Norris)

<https://www.youtube.com/watch?v=2brK2AfXHeQ>

and not to do this would be a breach of the moral law; how much more a breach if I should actually take away his Liberty.

4. Slavery is contrary to the relative duties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parents and children. "Wives be obedient unto your own husbands;" "Children obey your parents." It is the duty of the parents to provide for the child, and not the child for the parent. - here are relative duties morally binding on husbands, wives, parents and children, the right or breach of which is criminal; and yet slaves, parents and children, are laid under a necessity of breaching them - the poor estate parents must provide for his master and children, and not for his own - The wife must obey her Master's or Master and not her husband - The children must obey others & not their parents! "parents bring up your children in the fear,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 - But how - if possible - can that be right which is so repugnant to these sacred duties? NO.

5. Slavery dispulses the ties of God and man; has the most strong and indissoluble of all others. - One of these ties is conjugal affection. The loving husband is torn from the weeping distracted em. bears of the most affectionate wife - carried far off, & sets like a heart to the best friend - how must the happiness of this loving pair be forever destroyed - perhaps they had children ^{to be} - I can not realize the scene without feeling deeply affected - Children too are torn from the parents their only solace in a wretched life - did I say a solace - how can they look on their dear tender little ones, growing up to slavery & watch them without a tear. How can the parents themselves consider their own happiness secure and permanent, when they know not the hour when they may be separated, or divided among children & heirs - Slavery is just calculated to make the poor creatures miserable. - These scenes of the separation of parents, children, husbands & wives are not alone equal, but such as I have often seen with distress. - Say, can this be right? can it be agreeable to a good God? or that word which commands us to leave Father and mother and cling to our wives? - NO.

6. Do to all men as you would they should do unto you - This needs no commentary, it is plain to all, who will see.

7. Oppression is repeatedly condemned and forbidden in the scriptures - But what is oppression? and: It is hard bondage Gen. 1.14 & 2.23 & 3.9. Deut. 26.7 for 50. 33. - It is forbidden Isai 1.17 and Chap: 58 throughout.

8. Wasn't the old Dispensation a jubilee was appointed in which all should go out free who had been slaves; of this jubilee the Christian day is the antitype - how should the trumpet of the Gospel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

It is often said by christians that it is impolitic to set the slaves free amongst us. - Many think otherwise - But christians ought not to let civil policy oppose the express will of God - If we know God's will, we are not to enquire whether it will be our interest to do it - May God dispose all to loose the bands of wickedness to untie the heavy burdens,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 to break every yoke from the necks of the captives.

Dear Bro: I submit these thoughts to you, if they may be of any assistance in the search of this truth, I shall be very thankful.

Shewell. B. Stone

발톤 W. 스톤의 '노예제도'에 관한 서신



좌측 사진은 켄터키 주 버번(Bourbon) 카운티에 소재한 발톤 W. 스톤이 살았던 2층 집이다. 우측 사진은 일리노이 주 잭슨빌(Jacksonville)에 소재한 '다이아몬드 그로브 프레리 농장'(Diamond Grove Prairie Farm)으로 스톤이 1838년부터 사망한 1844년까지 살았던 곳이다. 스톤은 1834년에 켄터키 주에서 일리노이 주 잭슨빌로 이주하여 '센트럴 그리스도인 교회'(Central Christian Church)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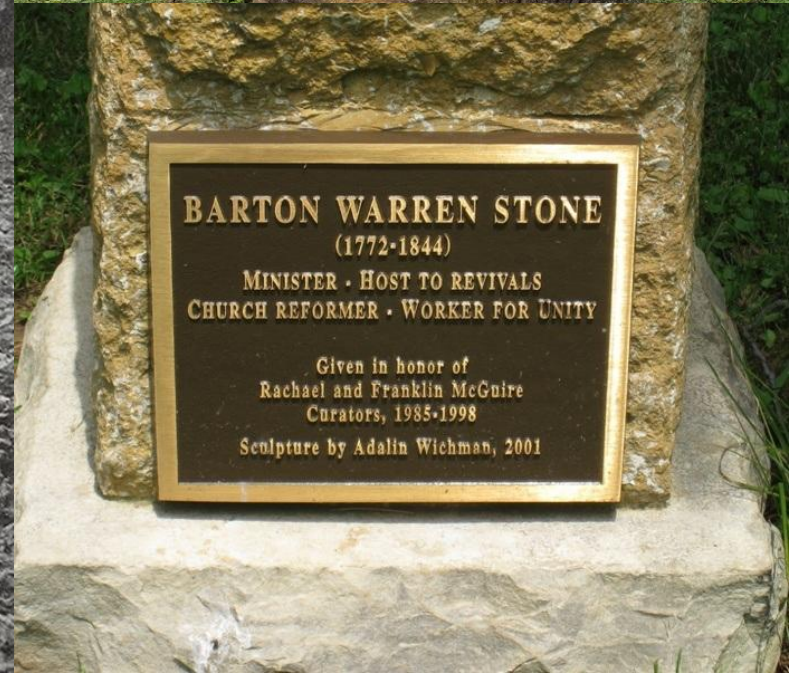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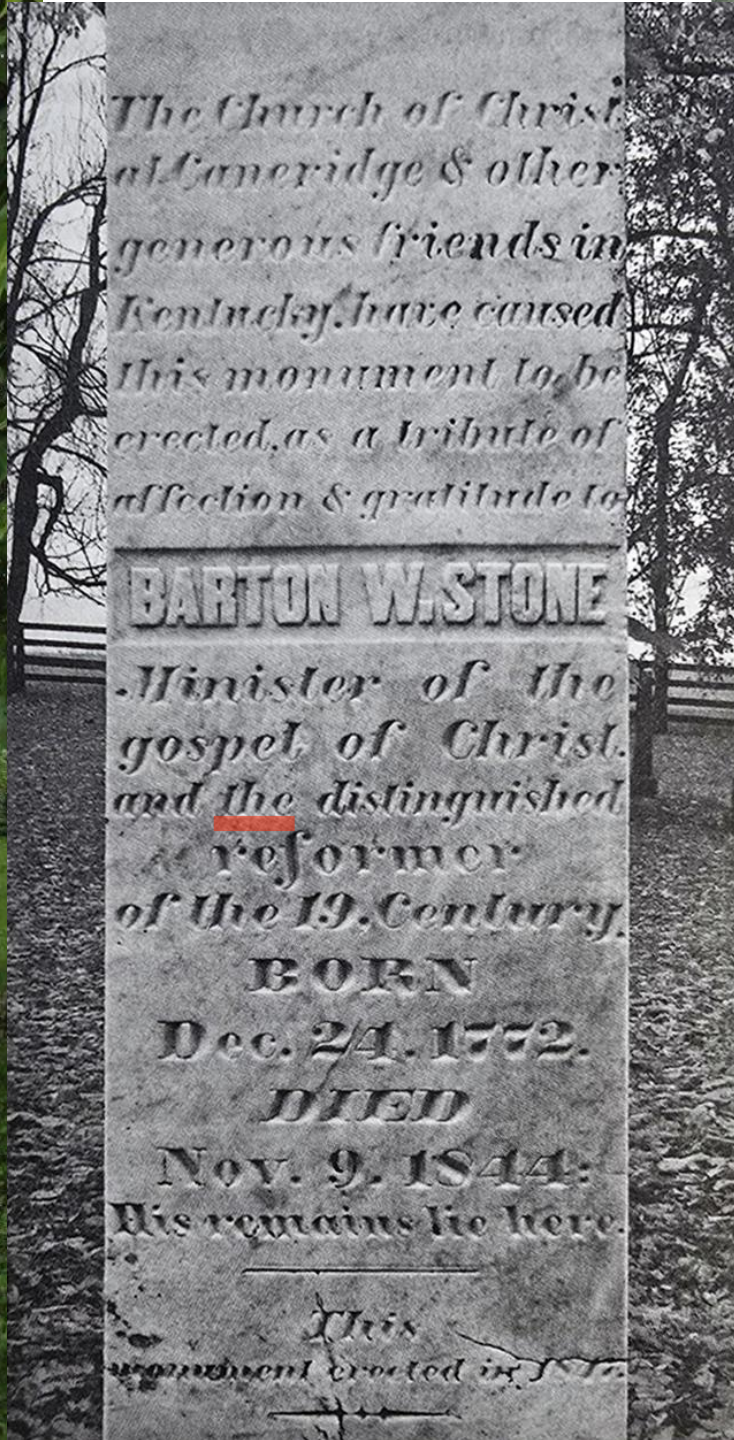
1844년 10월 2일에 스톤은 그의 유언을 작성하였다. 그 다음 날 그는 셀리아(Celia)와 그의 가장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주리 주에 사는 자녀들과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리노이 주 잭슨빌을 출발하였다. 미주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차 지구 집회가 1844년 10월 18-21일까지 콜롬비아에서 북쪽으로 3마일 떨어진 분(Boone) 카운티 소재 베어 크릭 교회(Bear Creek Church)에서 개최되었다. 10월 21일 날 설교 후, 일리노이 주로 출발하기 전 스톤은 미주리 주에서 의사였던 아들과 하루나 이틀을 보냈다. 하니발(Hannibal)에 못 미쳐서 그는 그의 큰 딸의 집에 들렀다. 가족들에 에워싸인 채 그는 **1844년 11월 9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그의 일리노이 주 농장에 있는 아카시아 숲에 매장되었다. 농장은 1846년에 팔렸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안디옥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묘지(the cemetery of the Antioch Christian Church)로 이장되었다가 1847년 그의 유골과 유물은 켄터키 주 파리(Paris) 근교의 케인 리지 교회로 이장되고 옮겨졌다.

스톤의 시신이 일리노이주 잭슨빌 근처의 안디옥 그리스도인의 교회 묘지에서 케인 리지로 이장되었을 때, 켄터키주의 교인들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기금을 모금했다.

비문에는 “발톤 W. 스톤,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사이자 19세기의 그 저명한 개혁가”(BARTON W. STONE, Minister of the gospel of Christ and **the** distinguished reformer of the 19 century)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출처가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캠벨이 비문을 읽고, “그(the) 저명한 개혁가”란 문구 대신에 “한(a) 저명한 개혁가”라고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는 이야기는 분명 신빙성이 있다. 20세기에 “스톤-캠벨 운동”이라는 학술적 명칭이, 부분적으로는 스톤의 개혁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전통에 널리 받아들여진 역설은, 캠벨에게는 분명 당혹스런 놀라움이었을 것이다.

(Douglas A. Foster,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 발톤 스톤이 자신과 비슷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곧 그리스도교계의 분열을 개탄하는 사람들이 장로교 교단에서 탈퇴하여 그들이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라고 부른 것을 조직한 것은 1803년이였다. 그 장로회는 총 9개월간 지속되다가 해체되었다. 이유는 그들이 당파심과 종파적 자부심을 두려워했고,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설립함으로써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분열들에 또 다른 분열을 추가했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804년 6월 28일 발톤 스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라고 불리는 것을 작성하고 해체하였다.
- 이날 로버트 마셜(Robert Marshall), 존 던래비(John Dunlavy), 리처드 맥네마르(Richard M'Nemar), 발톤 스톤(B. W. Stone), 존 톰프슨(John Thompson), 데이비드 펄비안스(David Purviance)가 증인들(Witnesses)로 서명하였다.

-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물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 첫째, “우리 자신이 무엇이라고 불릴 것인가?” 합의된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름과 성경이 말하는 이름을 취하여 자신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이라고 부르자는 것이었다.
- 둘째, “우리의 교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합의된 내용은 우리 자신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이라고 부르자는 것이었다.
- 셋째, “우리의 징치(懲治)에 대한 규칙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합의된 내용은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하고 전적으로 충분한 규칙(the Bible alone as our only and all sufficient rule for both faith and as well as practice)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THE
CHRISTIAN MESSENGER

AND FAMILY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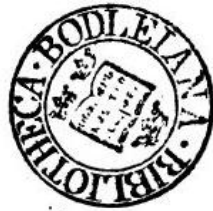
DEVOTED TO THE

DISSEMIN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발톤 W. 스톤의 정기간행물

ENLARGED SERIES.

VOL. II.



LONDON:

PUBLISHED BY SIMPKIN MARSHALL AND CO.,
STATIONERS' HALL COURT;

AND MAY BE HAD OF THE BOOKSELLERS IN ANY PART OF ENGLAND,
IRELAND, SCOTLAND, AND WALES.

1846.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번역 및 해설: 조 동 호

<http://kccs.info/rm03.htm>

<http://kccs.info/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pdf>

한 성 신 학 대 학

- 이 문서는 이전 스프링필드 장로교회의 모든 회원과 교회가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했다.
-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신약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모든 교회 구조와 규칙에 반대할 것이며, 각 지역 회중이 목사를 선택하고 심사할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그런 다음 이 문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개종과 천년왕국의 도래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연합할 것을 촉구했다.**
- 의도적으로 자세한 교리적 진술은 하지 않았다.
- 그것은 모든 비성경적인 강압적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천명했**을 뿐이다.

-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을 채택한 스톤의 개혁은 구원에 대한 칼뱅주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 이 운동은 성장하고 확산되었지만 좌절이 없지는 않았다.
- 원래 다섯 명의 목사 중 두 명은 새로운 운동의 교리적, 구조적 정밀성 부족에 좌절하여 장로교로 돌아갔다. 다른 두 명은 또 다른 급진 운동인 셰이커교(Shakers)의 지도자가 되었다.
- 스톤만 남았고 그는 "서부지역 그리스도인들"(western Christians)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 스톤의 운동은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가 이끄는 동부지역의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룹과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와 애브너 존스(Abner Jones)가 이끄는 뉴잉글랜드의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룹과 즉시 연결되었다.

1800년대 미국의 서부개척지



1800년대
서부 개척지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루이지애나 주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번역과 해설: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For where a testament is, there must of necessity be the death of the testator; for a testament is of force after men are dead, otherwise it is of no strength at all, while the testator liveth. Thou fool, that which thou sowest is not quickened except it die.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a corn of wheat fall into the ground, and die, it abideth alone; but if it die, it bringeth forth much fruit. Whose voice then shook the earth; but now he hath promised saying, yet once more I shake not the earth only, but also heaven. And this word, yet once more, signifies the removing of those things that are shaken as of things that are made, that those things which can not be shaken may remain.—Scripture

유언(遺言)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 성서

THE PRESBYTERY OF SPRINGFIELD sitting at Cane-ridge, in the county of Bourbon, being, through a gracious Providence, in more than ordinary bodily health, growing in strength and size daily; and in perfect soundness and composure of mind; but knowing that it is appointed for all delegated bodies once to die; and considering that the life of every such body is very uncertain, do make and ordain this our last Will and Testament, in manner and form following, viz.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버번(Bourbon) 카운티(County) 케인리지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말미암아 평소보다 더욱 건실하고 강성하게 날이 성장하고 있고, 정신 또한 온전히 건전하고 차분한 상태에 있으나 대표를 파송한 모든 단체들이 한번은 죽도록 정해져있음을 알고, 또 그 같은 모든 단체들의 생명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우리의 이 유언서를 작성하고 제정하는 바이다.

Imprimis. We will, that this body die, be dissolved, and sink into union with the Body of Christ at large; for there is but one body, and one Spirit, even as we are called in one hope of our calling.

먼저, 우리는 이 장로회가 죽고 해체되어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원한다. 이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

이다.

Item. We will that our name of distinction, with its Reverend title, be forgotten, that there be but one Lord over God's heritage, and his name one.

항목. 우리는 우리의 구별된 명칭과 존경하는(Reverend)이라는 칭호가 잊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업 위에 오직 한 주(主)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Item. We will, that our power of making laws f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and executing them by delegated authority, forever cease; that the people may have free course to the Bible, and adopt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항목.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법들을 제정하고, 위임된 권위로 그것들을 집행하는 권한이 영원히 멈추기를 원한다. 이는 성도들이 성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하게 하려 함이다.

Item. We will, that 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 henceforth study the Holy Scriptures with fervent prayer, and obtain license from God to preach the simple Gospel, with the Holy Ghost sent down from heaven, without any mixture of philosophy, vain deceit, traditions of men, or the rudiments of the world. And let none henceforth take this honor to himself, but he that is called of God, as was Aaron.

항목. 우리는 복음 사역의 후보자들이 이제부터는 뜨거운 기도로 성서를 연구하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설교 면허증)을 얻어 단순한 복음을 설교하기를 원한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교문이 조금도 섞이지 않게 하고, 지금부터는 아무나 이 영예를 스스로 취하지 못하게 하고, 아론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만 취하게 하라.

Item. We will, that the church of Christ resume her native right of internal government,—try her candidates for the ministry, as to their soundness in the faith, acquaintance with experimental religion, gravity and aptness to teach; and admit no other proof of their authority but Christ speaking in them. We will, that the church of Christ look up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forth laborers into his harvest; and that she resume her primitive right of trying those who say they are apostles, and are not.

항목.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치(內治) 즉 목회 후보자들이 믿음은 건전한지, 체험적 신앙은 이해하는지, 가르칠 만한 품위와 적합성은 있는지를 알아 볼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그들의 권위에 대한 어떤 다른 증거도 인

정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도록 추수의 주님을 바라보며, 자칭 사도라 하되 실상은 아닌 자들을 시험할 태고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Item. We will, that each particular church, as a body, actuated by the same spirit, choose her own preacher, and support him by a free-will offering, without a written call or subscription—admit members—remove offenses; and never henceforth delegate her right of government to any man or set of men whatever.

항목. 우리는 개개의 교회가 한 몸으로서 같은 정신으로 활동하며, 자기 교회의 설교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원하는 헌금으로 설교자를 사례하며, *서명 청빙이나 승낙 없이 --* 교인들을 받아 드리고 *--* 위법을 제거하며, 그리고 이제부터는 결코 교회의 처리권을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위임하지* 않기를 *원한다*.

Item. We will, that the people henceforth take the Bible as the only sure guide to heaven; and as many as are offended with other books, which stand in competition with it, may cast them into the fire if they choose; for it is better to enter into life having one book, than having many to be cast into hell.

항목.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성서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잡이로 삼기를 *원한다*. 성경과 경쟁하는 다른 책들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한다*면 그 책들을 불 속에 던져 버려도 좋다. 이는 많은 책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Item. We will, that preachers and people cultivate a spirit of mutual forbearance; pray more and dispute less; and while they behold the signs of the times, look up, and confidently expect that redemption draweth nigh.

항목. 우리는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관용의 정신을 기르며, 논쟁은 줄이고 기도는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 또한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위를 바라보고 구속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며 기대하기를 바란다.

Item. We will, that our weak brethren, who may have been wishing to make the Presbytery of Springfield their king, and wot not what is now become of it, betake themselves to the Rock of Ages, and follow Jesus for the future.

항목. 우리는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그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으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이 만세 반석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 앞으로는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

Item. We will, the Synod of Kentucky examine every member who may be

suspected of having departed from the Confession of Faith, and suspend every such suspected heretic immediately, in order that the oppressed may go free, and taste the sweets of Gospel liberty.

항목. 우리는 켄터키 주 노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회원을 조사하고, 그러한 이단으로 *의심되는* 모든 자를 즉각 정직(停職)시켜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복음의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도록 하기를 *원한다*.

Item. We will, that Ja-----, the author of two letters lately published in Lexington, be encouraged in his zeal to destroy partyism. We will, moreover, that our past conduct be examined into by all who may have correct information; but let foreigners beware of speaking evil of things which they know not.

항목. 우리는 최근 렉싱턴에서 발표된 두 통의 편지들의 저자인 Ja----- 모씨가 *당파주의*를 파괴하려는 그의 열심에서 격려받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행적이 정확한 정보를 가진 모든 이들에 의해 조사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Item. Finally we will, that all our sister bodies read their Bibles carefully, that they may see their fate there determined, and prepare for death before it is too late.

항목.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매 단체들이* 성서를 주의 깊게 읽고, 거기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음을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을 대비하기를 *원한다*.

Springfield Presbytery,

June 28th, 1804 (L. S.)

Robert Marshall,
John Dunlavy,
Richard M'Nemar,
B. W. Stone,
John Thompson,
David Purviance. Witnesses.

스프링필드 장로회
1804년 6월 28일 직인을 찍을 자리(Locus Sigilli)

로버트 마셜,

존 던래비,
리처드 맥네마르,
발론 W. 스톤,
존 톰프슨,
데이비드 펠비안스,
증인들(장로인 데이비드 펠비안스를 뺀 나머지 목사들의 이름은 알파벳순)

증인들의 진술
The Witnesses' Address

We, the above named witnesses of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knowing that there will be many conjectures respecting the causes which have occasioned the dissolution of that body, think proper to testify, that from its first existence it was knit together in love, lived in peace and concord, and died a voluntary and happy death.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에 이름이 언급된 우리 증인들은 이 단체의 해산을 초래한 원인들에 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 단체가 처음 조직되면서부터 사랑으로 결속되었고, 화평과 화합 속에서 지냈으며, 자발적이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Their reasons for dissolving that body were the following: With deep concern they viewed the divisions, and party spirit among professing Christians, principally owing to the adoption of human creeds and forms of government. While they were united under the name of a Presbytery, they endeavored to cultivate a spirit of love and unity with all Christians; but found it extremely difficult to suppress the idea that they themselves were a party separate from others. This difficult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ir success in the ministry. Jealousies were excited in the minds of other denominations; and a temptation was laid before those who were connected with the various parties, to view them in the same light. At their last meeting they undertook to prepare for the press a piece entitled 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 in which the world will see the beautiful simplicity of Christian church government, stript of human inventions and lordly traditions. As they proceeded in the investigation of that subject, they soon found that there was neither precept nor example in the New Testament for such confederacies as modern Church Sessions, Presbyteries, Synods, General Assemblies, etc. Hence they concluded, that while they continued in the connection in which they then stood, they were off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of which Christ himself is the chief corner stone. However just, therefore, their views of church government might have been, they would have gone out under the name and sanction of a self-constituted body. Therefore, from a principle of love to Christians of every name, the precious cause of Jesus, and dying sinners who are kept from the Lord by the existence of sects and parties in the church, they have cheerfully consented to retire from the din and fury of conflicting parties—sink out of the view of fleshly minds, and die the death. They believe their death will be great gain to the world. But though dead, as above, and stript of their mortal frame, which only served to keep them too near the confines of Egyptian bondage, they yet live and speak in the land of gospel liberty; they blow the trumpet of jubilee, and willingly devote themselves to the help of the Lord against the mighty. They will aid the brethren, by their counsel, when required; assist in ordaining elders, or pastors—seek the divine blessing—unite with all Christians—commune together, and strengthen each others' hands in the work of the Lord.

그들이 이 단체를 해산하기로 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깊은 우려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과 당파심을 바라보았는데, 주로 인위적인 신조들과 치리 형태들의 채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이 장로회란 이름아래 연합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사랑과 일치와 정신을 함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한 당파였다는 생각을 억누르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의 사역이 성공할수록 더욱 커졌다. 질투심들이 다른 교파들의 마음속에서 불붙게 되었고, 여러 당파들과 연결된 자들에게도 그들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유혹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모임에서 “교회 정치에 관한 관찰”이란 글을 출판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이를 통해 세상은 인위적인 창안들과 권위적인 전통들이 제거된 그리스도인의 교회 정치의 아름다운 단순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신약성서에는 현대와 같은 연합체, 즉 당회, 지방노회, 주노회, 전국총회와 같은 지침이나 사례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속해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요한 모퉁잇돌이 되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에 관한 그들의 견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구성한 단체의 이름과 승인아래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 예수의 소중한 사명, 그리고 교회의 분파와 당파의 존재로 인해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은 기꺼이 서로 충돌하는 당파의 소란과 분노에서 물러나, 육적인 마음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산이 세상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비록 죽어 죽을 운명의 육신을 벗었다할지라도, 그 육신은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의 경계에 너무 가깝게 붙잡아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자유의 땅에서 살아가며 말한다. 그들은

회년의 나팔을 불고, 기꺼이 강한 자들에 맞서 주(主)를 돕는 일에 헌신한다. 그들은 필요할 때, 형제들을 그들의 조언으로 도울 것이며, 장로들과 혹은 목사들을 안수하는 것을 돕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며, 주(主)의 사역에서 서로의 손을 굳세게 할 것이다.

We design, by the grace of God to continue in the exercise of those functions, which belong to us as ministers of the gospel, confidently trusting in the Lord, that he will be with us. We candidly acknowledge, that in some things we may err, through human infirmity; but he will correct our wanderings, and preserve his church. Let all Christians join with us, in crying to God day and night, to remove the obstacles which stand in the way of his work, and give him no rest till he make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We heartily unite with our Christian brethren of every name, in thanksgiving to God for the display of his goodness in the glorious work he is carrying on in our Western country, which we hope will terminate in the universal spread of the gospel, and the unity of the church.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 직무들을 계속 수행하기로 뜻을 세우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신뢰한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들에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방황함을 바로 잡아 주시고, 그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와 함께 동참하게 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며, 그분이 예루살렘을 땅 위에서 찬양받게 하실 때까지 그분에게 쉼을 드리지 말자. 우리는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진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부 지역에서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 속에서 펼쳐 보이신 그분의 선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일이 결국 복음의 보편적 확산과 교회의 일치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해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최후의 유언과 증서)는 미국 켄터키(Kentucky)주(州) 버번(Bourbon) 카운티(County) 케인리지(Cane Ridge)에 위치한 발톤 스톤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스프링필드 장로회가 1804년 6월 28일 지방노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유언서와 해명서이다. 1990년경 아래아한글 1.0으로 작성한 우리말 번역을 거의 35년만인 2025년 12월 중순에 다시 번역하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가 조직된 곳은 오하이오주 해밀턴 카운티에 있던 스프링필드 타운십이었다. 이 지역은 신시내티 북쪽 교외 지역으로 18세기 말에 스프링데일 장로교회(1792-2020)가 세워지면서 ‘스프링필드’(Springfield)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후 행정구역과 마을 이름이 바뀌면서 ‘스프링데일’(Springdale)로 개칭되었다.

본 문서는 리처드 맥네마라의 협조아래 주로 발톤 스톤이 작성하였고, 여섯 명의 증인들이

알파벳순으로 서명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랑하는 최초의 문서이며, 1809년 9월 7일 토마스 캠벨이 초안하여 발표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유언서 전반부는 12개 이상의 성구(예: 히 9:16-17; 고전 15:36; 요 12:24; 히 12:26-27; 엠 4:4-6; 마 23:10; 롬 8:2; 골 2:8; 마 9:3; 눅 10:2:8; 마 5:29-30; 요 1:32; 히 5:4; 계 2:2; 눅 21:28)가 인용 또는 부분 사용되고 있어, 본 문서가 성서에 바탕을 둔 유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문서에서 발톤 스톤은 교회연합의 당위성, 성서의 권위회복,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해체를 선언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분열과 파당을 멈추고 죽어 해체되어 더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 그리고 이어서 각 조항에서는 존귀를 받아야 할 자는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시며, 자유로운 성서연구를 막고, 성령의 법을 어기는 교회법과 교권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방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성서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과 실천을 규범 짓는 유일한 책이란 것을 선포하면서 세속학문이 성서보다 우위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훈련된 참 일군을 선별하여 파송할 자치권과 그 책임을 회복해야 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후반부 해명서에서는 유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본 문서의 탄생은 적어도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토양에서 가능했다. 제임스 오켈리는 발톤 스톤보다 앞서 이미 감리교단에서 교회치리와 목회자 임명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본 문서는 장로교단안에서 벌어진 자유로운 성서연구를 위한 선투(善鬪)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몇몇 사람들이 성서해석과 신학적 결론을 가지고 율타리를 쫓게 치는 파당주의를 극복하고 더 큰 범위의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자유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였다. 이러한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인위적인 신조나 교리 혹은 교회법에 얽매임이 없이 성서로 돌아가 성서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성서가 금하는 것을 금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용과 사랑의 정신이 절대적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서만이 우리의 헌법이 될 때에 교회법이나 교권에 지배됨이 없이 그리스도와 성서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성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피로 사신 바 된 그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소속은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된 관심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본 문서를 작성한 발톤 워렌 스톤(Barton Warren Stone)은 1772년 12월 24일 미국 메릴

랜드주 찰스 카운티 포트 토바로에 가까운 곳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세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아홉 살 때 독립전쟁이 있었다. 발톤 스톤은 재산 분배를 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대학교육에 투자했다. 그는 북 캐럴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서 멀지 않은 유명한 데이비드 콜드웰 아카데미(David Caldwell Academy)에 등록하여 다른 많은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삼년간의 고전수업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설교를 듣고 회심 체험을 하게 된다. 그가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의 유향과 불의 심판을 주제로 한 설교보다는 잔잔하게 마음에 와 닿는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에 감화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작성한 유언서에서 품기는 성품과 다름 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평화주의와 타고난 실천적 연합의 정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겠다는 그의 깊은 관심에서 출발되었다. 스톤은 29세에 엘리자 캠벨(Eliza Campbell)과 결혼하였다.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설교 자격증을 따기까지 일 년 동안 스톤은 조지아주 워싱턴에 위치한 숙곳 아카데미(Succoth Academy)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이 학교 교장이었던 호프 홀(Hope Hull)은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의 운동을 지원하는 감리교인이었다. 여기서 스톤은 홀과 오켈리 운동의 영향을 받고 교권 민주화의 필요성을 수련 받게 된다. 조지아주에서 돌아와 설교 자격증을 받은 스톤은 목사안수를 받기까지 북 캐럴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로 설교여행을 시작했고, 테네시주를 거쳐 켄터키주로 옮겨와 렉싱턴에서 가까운 케인리지와 콘코드 두 교회에서 임시 목회자(supply minister)가 되어 불과 수개월 만에 각각 30명, 50명의 새 신자를 얻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스톤은 그 다음 해인 1798년에 임직 목회자로 초대되었다. 이후, 목사 안수식 때에, 스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서에서 가르친 체계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받아 드리고 채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체 회중이 들을 수 있는 힘찬 목소리로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이 답변에 반대가 없어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가 된지 불과 5년 만에 스톤은 이 신앙고백서가 성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성서로 돌아가기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1800년 통계에 의하면, 켄터키주의 신앙인은 전체 인구 221,000명 가운데 불과 10,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은 자연신론자이거나 무신론자였으며, 종교적인 무감정에 빠져 있었다. 독립전쟁직후 개척지였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육설, 무도회, 파티, 말경주, 도박, 음주 등으로 대단히 문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와 같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켄터키주 일대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스톤 자신은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비명, 경련, 입신과 같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다. 특히 1801년 8월에 있었던 케인리지 부흥회 때는 참석자가 무려 25,000여명에 이르렀고, 음식이 떨어져 기아상태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설교와 찬송과 기도가 계속되었다.

부흥회의 열이 가라앉자, 장로교회는 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지방교회와 주노회의 권위가 부흥회에 참석했던 목사들과 평신도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기존 장로교 신학과 다른 입장을 보인 부흥회 그룹은 그들만의 친교모임을 만들고 강하게 결속하였다. 1810년에는 콤버랜드(Cumberland) 장로교단이 형성되었고, 뉴 라이트(New Lights)도 새로운 장로회들

을 조직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톤은 신앙체현의 중요성과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전통적인 신조들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교회 분열의 최악성을 보았고, 개척지역의 민주적 자유를 함께 나누며, 점차 교회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는 비록 부흥운동에 적극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연대했다.

콘코드와 케인리지에서 장로교회 목사로 봉직한지 육년 만에 스톤은 성도들을 모아 놓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양심적으로 장로교회가 옳다고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당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성도들의 금전상의 모든 의무를 면하여 주었다. 그는 회중이 보는 앞에서 사레비 지불이행에 대한 약정서를 찢어 버렸다. 이와 동시에 부흥운동에 동참했던 스톤의 동료 목회자들도 이와 유사한 결단을 해야 했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에 서명한 로버트 마셜(Robert Marshall), 존 던래비(John Dunlavy), 리처드 맥네마르(Richard McNemar), 존 톰프슨(John Thompson)이 이들 가운데 일부이다.

스프링필드 장로회 형성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맥네마르의 견해가 워싱턴 장로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였다. 그는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담긴 교리에 위배되는 위험하고 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 문제가 1803년 9월 7일 렉싱턴에서 열린 켄터키주 노회에 상정되었고, 주노회는 워싱턴 장로회가 맥네마르의 문제에 엄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비난하였다. 투표에서 부흥회측은 반부흥회측의 수적 우세를 꺾지 못하고 지고 말았다. 그러자 부흥회측은 주노회의 사법권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성명서에 서명한 마셜, 스톤, 던래비, 맥네마르, 톰프슨은 그들의 글에서 충분하고, 최종적이며, 완결된 권위로서의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헌신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자유롭게 해석하기를 바라는 갈망을 피력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있고 난 후에, 주노회는 1803년 9월 13일, 분리자들이 주노회의 사법권에서 탈퇴했을 뿐 아니라, 신앙고백서에서 떠났으며, 교회의 교리와 규범에 환원하기를 거절하고 그들 자신의 장로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서명자들을 정직(停職)할 것을 투표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구성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된 일이다. 이들은 1804년 1월에 “켄터키주 노회의 사법권을 포기한데 따른 변호”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로버트 마셜이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1부를 썼고, 스톤이 신앙고백서에 담긴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2부를 썼으며, 톰프슨이 인위적 신조의 권위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서를 변호하였다.

독립 기구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단지 9개월 동안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정책이나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장로교이면서도 기존 장로제도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기구였다. 회원 교회들은 모두가 15개의 장로교회로 구성되었다. 이들 교회 말고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교회들이나 부흥설교자들이 환영받는 비조직의 알려지지 않은 그룹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질적으로 어떠한 교권에도 순복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조직한 교회들도 구속(atonement)이나 다른 교리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일치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텅 비고 이름뿐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해

체 돼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조직에서 오직 스톤만이 안정적이고 의존할만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스톤은 이 유언서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파당적인 교회명을 버리고, 또 우리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 뿐(We are NOT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이라는 정신으로 '그리스도인'(Christians)의 이름아래 교회의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아브너 존스와 엘리야스 스미스(Abner Jones and Elias Smith), 그리고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운동에 함께 연대하게 되었다. 이들은 감리교인(Methodist), 장로교인(Presbyterian), 침례교인(Baptist)과 같은 이름은 옳지 않다고 믿었고, 침수세례가 옳다고 믿는 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스톤과 함께 유언서에 서명했던 목사들 가운데 맥네마라와 던래비는 셰이커(Shakerism)에 넘어갔고, 마셜과 톰프슨은 장로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침수를 주장했던 필비안스는 설교가이지만 본래가 정치가였다. 그는 주의원으로 활약했다.

이상으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의 번역과 이 문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임스 멀치(James DeForest Murch)가 쓴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s Only*)이란 책에 실린 스톤에 관한 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미 본 문서가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토양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스톤이 주장한 교회연합의 당위성, 성서의 권위회복,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의 토양과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물어 보는 아픔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우리의 생존을 미국식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틀에 맡겨 버려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다른 교단의 것들을 따라 가셔도 안 되겠다. 우리 식에 맞는 우리의 것들이 있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물어 보자. 미국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은 정신이지,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리도 조직의 틀도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소중한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서만이 우리의 헌법이 되며, 사랑과 관용의 정신만이 끈끈한 접합제가 된다는 진리이다. 이제로부터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의 것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옳다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남의 것이니까 안 되고, 우리 것이니까 벌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버려야 한다. 남의 것이든 우리의 것이든 성서에 비추어 옳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이다. '본질에 일치들, 비본질에 자유들, 모든 일에 사랑과 관용을!'

참고서적

Stone, Barton W.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Cochran, Louis and Cochran, Bess White. *Captives of the Word: A Narrativ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the Christian Churches(Independent), and the Church of Chris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Dickinson, Hoke S., ed. *The Cane Ridge Reader.* Cane Ridge, 1972. 이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되었다: 발톤 스톤의 자서전,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서부지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Dunnivant, Anthony L. *Cane Ridge in Context: Perspectives on Barton W. Stone and the Revival.* Nashvill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92.

McAllister, Lester G. *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Saint Louis, Missouri: The Bethany Press, 1975.

Mills, Dean. *Union on the King's Highway: The Campbell-Stone Heritage of Unit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Murch, James DeForest.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Webb, Henry E.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90.

Womack, Morris.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W. 스톤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by Douglas A. Foster

- 스톤과 한 그룹의 동료 장로교 목사들은 알렉산더 캠벨이 1809년 미국에 도착하기 5년 전인 1804년 켄터키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 스톤의 “인위적인” 신조들과 신앙고백들에 대한 반대와 성경만으로 지배되는 단순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끈질긴 헌신과 가시적인 교회연합에 대한 열정은 캠벨과 캠벨의 개혁운동과의 강한 친화력을 만들어냈다.
- 스톤은 1798년 10월 켄터키 주 트란실바니아 장로회(the Presbytery of Transylvani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예정론, 공식 신앙고백서들을 포함한 몇 가지 주요 장로교 교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 스톤의 여러 전통적 신학적 믿음(신념)에 대한 의구심은 자신의 안수식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진술을 거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성경이 평이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신약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교리는 참일 수 없다고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려는 거짓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지어냈다고 믿었다.
-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체한 직후, 스톤은 알렉산더 캠벨이 쌍방의 개혁운동들의 연합에 위험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간주할 교리적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캠벨은 자신의 개혁이 스톤과 혼동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톤과 거리를 두었다.

- 스톤은 1805년 소책자 <속죄: 친구에게 쓴 두 통의 편지의 내용>(Atonement: The Substance of Two Letters Written to a Friend)에서 이러한 믿음(신념)들의 첫 번째 것을 표현했다.
- 스톤은 자서전에서 정통주의(orthodox) 대속의 속죄 교리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간을 분노한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생각했다.

-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 많은 인간의 영적 죽음을 대신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만인(보편) 구원설의 가르침에 반대하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분명히 가르친다고 주장했다(고후 5:14-15). 그러므로 그는 대속의 속죄를 거부했다.
- 스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켰다고 믿었다.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은 듣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구원의 무상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이끌 것이다. 그의 전하는 본질적으로 속죄에 대한 고전적 도덕 이론이었다.

- 스톤은 정통주의(orthodox) 삼위일체 교리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 그는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터무니없고 분열적이라고 믿었다.
- 그는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신격의 충만함을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며, 성령은 단순히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며 별도의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스톤은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캠벨이 켄터키에 왔을 때, 자신이 공개적으로나 사석에서 캠벨의 말을 자주 들었지만, 자신(또는 그리스도인들)과 캠벨 (또는 개혁가들)의 교리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몇 가지 점에서 캠벨과 의견을 달리했지만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 그 의견차이 가운데 한 가지가 죄 사함을 위한 침례였다. 스톤은 캠벨이 **성령의 영향들**에 관해 충분히 명시적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성령의 영향들을 부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스톤이 성령의 영향(役事)들에 관한 캠벨의 입장을 언급한 이유는 스톤이 침수세례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침례교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런 스톤의 견해들은 1830년대에 시작된 두 운동의 많은 회중(교회)들의 연합과 수많은 공동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캠벨이 발톤 W. 스톤의 그리스도인 운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 캠벨보다 거의 17살 많은 스톤의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movement)**은 20년 동안 확장되어 왔고, 켄터키 주의 여러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속죄에 대한 스톤의 믿음(신념)**은 이단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캠벨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캠벨은 스톤과 그의 개혁을 핵심적인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행에 있어서 **이단적이진 않더라도 결함이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였지만, 자신의 침례교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부터 스톤과의 연대가 그의 개혁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었다.
- 예를 들어, 1827년에 <침례교 기록자>(Baptist Recorder)지 편집인 **스펜서 클랙(Spencer Clack)**은 캠벨의 “사도시대의 복음과 관례”(ancient gospel and order)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 하지만 클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톤이 부정하는 것을 반박하지 못한 캠벨을 질책했다. “형제여, 스톤 씨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또 1843년 9월 캠벨이 장로교 지도자 나단 라이스(Nathan Rice)와 치열하게 다투었던 16일간의 토론에서 라이스는 캠벨이 유니테리언을 포함한 이단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격했다.
- 라이스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존재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스톤의 글을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지에서 인용했고, 추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에 실린 스톤의 최근 기사들을 인용해서 캠벨을 공격했다.

- 라이스는 캠벨이 스톤 및 그의 추종자들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하였다.
- 캠벨은 나단 라이스와의 토론 때 라이스의 집요하고 끈질긴 인신공격성 발언에 반격하는 동안 스톤과 스톤 운동에 대한 경멸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 발톤(바톤, 발튼) W. 스톤은 1841년 뇌졸중을 겪었고, 1844년 11월 9일 별세했다. 캠벨은 스톤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자신의 논평 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의 힘과 이해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사도적 틀을 진심으로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으므로 추상적인 정통성보다 도덕적 우수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그리스도교의 모든 위대한 사실과 문서들을 진심으로 믿고 소중히 여길 때 더욱 그렇다.”

- 스톤은 사망 직전에 쓴 자서전에서 1824년 켄터키 주 조지타운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캠벨을 처음 만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상당한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캠벨을 가장 유능한 동료 개혁가로 묘사하였고, 끝까지 캠벨과 갈라서지 않았다.
- 스톤의 업적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재조명됐으며, 스톤-캠벨 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라는 학명을 얻었다.
- 하버드대학교에서 Ph.D학위를 마친 Churches of Christ 소속의 리로이 개리트(Leroy Garrett)는 ‘스톤-캠벨운동’이란 학명을 처음 자신의 책 (1981)에 사용한 인물로서 일치보다는 환원이 스톤-캠벨운동의 최우선의 신학적 동력이었다는 주장에 반발하면서 캠벨의 강조가 일치의 끈으로써 사도전통의 본질들 위에 있었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수많은 비본질 항목들에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 캠벨의 부친 토마스과 월터 스콧과 함께 일반적으로 캠벨의 개혁(환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지(연합)로 여겨지는 인물은 발톤(발튼, 바튼) W. 스톤(Barton W. Stone)이다. 19세기 그의 노력으로 성장한 세계적인 전통은 학계에서 ‘스톤-캠벨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스톤의 관계는 기껏해야 항상 불안했고 최악의 경우 그 운동의 중심과 정신에 대한 끈질긴 싸움을 상징했다.